

# 첼로 거장과 함께 꿈의 연주 '목포 엘시스테마'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 창단 1주년 기념공연

휘트콤 교수 마스터 클래스 "행복했다"

목포·신안지역 보육원생과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로 구성된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단무장 흥의원)'가 23일 목포 신안비치호텔 10층에서 창단 1년 만에 뜻 깊은 공연을 펼쳤다.

한국판 '엘 시스템'으로 주목받은 이날 공연에서는 특히 첼로분야의 세계적 거장인 벤저민 휘트콤 교수(미국 워스콘신주 화이트워터대)가 첼로 단원들에게 마스터 클래스(음악 분야의 거장이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를 진행해 화제가 됐다.

휘트콤 교수는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로부터 우연히 전남지역 소외계층 어린이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힘들게 연습한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며 "미국 시민으로서, 순수한 불러티어(자원봉사) 정신에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목포에 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휘트콤 교수는 또, 첼로는 사람 목소리와 제일 가까운 악기인 만큼 항상 노래를 부르는 기분으로 연주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아이들이 가르쳐주는 것을 모두 소화해 마치 대학생을 가르치는 느낌을 받아 너무 즐거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연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날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날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한 장 가행(향도여중 2·객원 악장)양은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을 계기로 악기를 시작했지만 그동안 봄에 벤나쁜 습관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수업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많이 고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장신행(교대부설초2·객원 수석)양은 "라트비아 출신의 미국 첼리스트 미샤 마이스키(Mischa Maisky)를 가장 존경한다"며 "앞으로도 연주활동을 계속해 제2의 장 하나님과 되고 싶다"는 아무진 포부를 밝혔다.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는 이 날 공연에서 모차르트의 '작은 별 변주곡', 하이든의 '놀랄 교향곡', 브람스의 '왈츠', 영화 미션 중 '밸리 판타지'에 이어 한국민요 모음곡과 홍난파의 '고향의 봄' 등 10여 곡을 연주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주선으로 23일 목포를 찾은 첼로분야의 세계적 거장 벤저민 휘트콤 교수가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의 첼로단원들을 상대로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대사관이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한 뒤 "아이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영감을 받아 훌륭한 연주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드림 오케스트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사관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후원으로 지난해 10월 창단된 드림 오케스트라의 단원은 현재 78명으로, 목포아동원과 신안보육원생을 비롯한 목포와 신안 지역 아동센터 6곳의 아이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폐교된 목포시 옥암동 옥남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주 월·화요일 3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o@

## 광주지하철 10명중 3명 무임승객…5년간 220억 손실

지자체 재정부담 ↑ 전국 광역의회 "국가 부담해야"

광주도시철도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한 무임 손실액 증가 폭이 매년 늘면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의 재정 부담도 매년 늘어가고 있어 전국 광역의회가 도시철도 무임 운송 손실액에 대한 정부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이 최근 5년간 22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전체 승객의 30% 이상이 무임 승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무임 승객인 셈이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율은 서울메트로 12.6%, 서울도시철도 13.5%, 부산교통 23.9%, 대구도시철도 21.8%, 대전도시철도 22.3%, 인천메트로 9.1%였고, 광주도시철도는 무려 3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지하철 무임 수송 인원은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06년 289만5000명 ▲2007년 374만7000명 ▲2008년 482만7000명 ▲2009년 526만6000명 ▲2010년 547만1000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무임 손실액은 2006년 28억9500만원에서 지난해 54억7100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무임 승객 및 무임 손실액이 매년 급증함에 따라 광주도시철도의 적자액도 2008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무임운송 현황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총수송인원(a)	17,442	17,203	15,790	13,922	10,991
무임수송인원(b)	5,471	5,266	4,827	4,015	3,506
무임손실액	5,471	5,266	4,827	3,747	2,895
무임수송률(b/a)	31.4%	30.6%	30.6%	28.8%	31.9%
당기순손실	30,857	28,579	23,722	49,782	49,477

이날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무임운송에 따른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도시철도의 운임손실은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운송 손실액이 커지자 전국 광역의회 운영 위원장협의회가 23일 도시철도 무임 운송 손실액에 대한 국가부담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택했다. 협의회는

한편,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도 2010년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통해 도시철도공사 경영구조 개선을 위해 자체 무임수송비 보전이나 무임수송 연령·할인을 조정·교통수당 지급 등의 대안을 건의했다. /최권일기자 cki@

### 1면 '한미FTA 반발' 서 계속

김운태 광주시장도 전날 성명을 통해 "한·미 FTA 비준안이 우리나라에 의해 단독처리된 것은 폭거로 이를 규탄한다"며 "국민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무능과 독주를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와 민주노동당, 민노총, 시민사회단체는 22일에 이어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 앞에서 항의시위와 함께 죽불 문화제를 벌이며 한미 FTA 비준 무효를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한·미 FTA 날치기 국회비준 무효화 및 이명박, 한나라당 심판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상경투쟁도 별일 예정이다.

농민회는 26일 오전 11시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전남 농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설적인 '박치기왕' 김일 기념체육관 내달 고흥서 개관

졌다. 인접한 생가는 주민들이 뜻을 모은 공덕비와 김일이 가장 아낀 동물로 잘 알려진 진돗개 동상이 자리잡았다.

고흥군은 12월 17일 김일 선수의 고향인 금산면 어전리에서 김일체육관 개관식을 열기로 했다.

국비 포함해 40억원이 투입된 체육관은 1만3000여 m<sup>2</sup> 부지에 총 면적 2200여 m<sup>2</sup>로 전시관 기능을 갖추고 애와공원도 조성됐다.

군은 또 체육관 안에 들어선 기념관(132m<sup>2</sup>)에 김 선수가 생전 시합 때 입었던 옷과 헬피언 벨트, 우승컵, 경기사진 등을 전시하고 전성기 모습 등을 보여줄 영상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개관 전날에는 소록도와 연결되는 거금대교가 개통할 예정이다.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

체육관 앞에는 김 선수의 생전 운동 모습을 조각한 동상이 세워졌다. /동부취재본부=주각종기자

1929년 고흥 금산에서 태어난 김일은 일본으로 건너가 1957년 역도선수로 활약하면서 국제대회에 축하공연과 함께 기념 이벤트로 세계 프로 레슬링대회를 열 계획이다.